



9일 정식 개관한 전통문화관에는 국악당과 무형문화재전수관, 상설작품 전시관, 다도체험장 등이 갖춰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악당·문화재전수관·다도체험장...

# 옛 선인들의 숨결을 만나다

## ‘전통문화관’ 오늘 개관

학정 이돈홍 선생이 쓴 ‘전통문화관’ 현관이 걸린 한옥 솟을대문을 지나면 계단 아래로 너른 마당이 나타난다. 무등산을 등에 지고, 한옥 여러채가 들어서 있다. 화순에 위치한 현존호 선생 제각을 그대로 옮겨온 한옥이 눈길을 끈다.

9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전통문화관을 8일 미리 둘러봤다. 전통문화관은 광주시의 자산인 다양한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중심사 입구에 문을 연 전통문화관은 부지 6471㎡, 연면적 2618㎡ 규모로 시비·국비 포함, 모두 1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호남은행 설립자인 현존호 선생의 제각 ‘무송원’이다. 광주은행이 10억에 이르는 이전비를 전액 부담하고 광주시에 기증, 문화관은 이곳을 국악당으로 활용한다. 바다에 편히 앉아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200여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너른 공간이다.

‘서석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악당에서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다양한 국악공연이 열리며 국악과 전통문화 예술교육체험, 세미나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무형문화재전수관은 광주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보유자들이 상주하며 전통국악과 기능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전시관에는 악기장 이복수·이춘봉, 소목장 조기종, 대목장 박영근씨 등 기능보유자 9명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돼 있다. 기능보유자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전시관을 찾은 이들이 쉽게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1호인 남도관소리 수궁가 박정자씨를 비롯해 문명자(가야금병창), 김남중(관소리 고법)씨 등 10명의 예능보유자들은 전수실에 입주, 자신들의 기량 연마와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남도의례음식 보유자인 최영자·이애섭씨가 맡아 진행할 남도의례음식체험장은 요리예 관심 많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입석당’과 상설공연이 진행될 야외공연장 ‘너털마당’도 눈길을 끈다.

전통문화관이 ‘시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급선무다. 문화관측은 우선 개관기념전으로 ‘민화 속의 용’전(박스참조)을 준비했으며 2월말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야외 공연장인 ‘너털마당’의 국악상설 공연을 확정, 3월부터 체계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문화관이 위치한 무등산이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 문화해설사 등을 활용해 토·일요일에도 문화관을 개방하고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악예술강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을 전통문화관장은 “전통문화관이 지역 전통문화의 메카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2-15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조정숙 ‘민화 속의 용’

19일까지 개관기념전 용 작품 전각 체험도

전통문화관은 개관기념전 작가로 전통민화를 전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조정숙씨를 초대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 조씨는 ‘민화 속의 용’을 주제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던 민화를 전각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올해를 상징하는 용을 중심으로 십이간지, 학업 성취 기원, 장수 기원 민화 등 선조들의 지혜와 소망이 담긴 작품들이다. 조씨는 담양 소재의 목판 원본 재현 행사를 비롯해 12차례 개인전과 4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시 기간중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용 작품을 전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의 062-224-09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용’

## 연인들을 위한 달콤한 밸런타인 콘서트

광주시립교향악단 올 첫 공연... 14일 문예회관 대극장

‘밸런타인 데이’ 때 주고 받을 게 꼭 초콜릿만은 아니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클래식 선율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이 올해 첫 공연으로 ‘연인들을 위한 밸런타인 콘서트’를 개최한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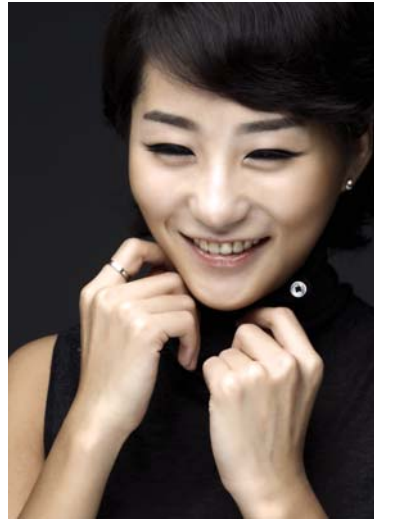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 ‘사랑과 죽음’,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등 ‘사랑’을 주제로 한 곡들이 연주된다.

기대되는 연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사진)가 나서는 협연무대다. 파

가니 국제콩쿠르 3위(2004), 시벨리우스 콩쿠르 3위(2005)에 이어 2008년 톨티보 국제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리사이틀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에 강한 인상을 남긴 신씨는 이번 피서가 지휘하는 워싱턴 내셔널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신씨가 들려줄 곡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한편 올해 광주시향은 한창 두각을 나타내는 영아티스트들과 협연무대를 잇따라 준비했다. 3월 30일에는 2010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



연하며 6월8일에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524-5086.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A-옥션’ 10~15일 고미술품·근현대미술품 경매

‘A-옥션’이 오는 10~15일 고미술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경매를 연다. 이번 경매에는 시작가 20만~15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고미술품과 근·현대미술품 등 120여점이 출품된다.

민화와 단청의 색감을 조화롭게 표현한 박생광의 대표작 ‘나비와 모란’(71x69cm·추정가 2000만~3500만원), 갖가지의 옛날 그릇과 꺾어진 화체를 함께 화폭에 담은

변관식의 기명필지도(155x51.5cm·추정가 400만~600만원) 등이 출품됐다. 또 서양화에서는 김병종의 ‘생명의 노래-숲에서’(70.5x96.5cm·추정가 700만~1400만), 오승윤의 ‘풍수’(53.5x38cm) 등이 눈에 띈다.

이밖에 이상범·허백련·김기창·허련·황종하·김구하·최성중씨 등의 작품이 출품된다. 문의 02-725-8855. /오광록기자 kroh@



오승윤 작 ‘풍수’

## 예술의 거리 활성화 포럼

서울인사동 쌈지길과 전주 한옥마을 성공 사례를 통해 광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포럼이 열린다.

2011아트로드 프로젝트(예술총감독 박성현)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공동예향화랑 1층에서 ‘예술의 길 활성화와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예술의거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 천호선(서울 인사동 쌈지길 전 대표)와 박시도(‘사단법인 수물’ 대표)씨가 각각 ‘인사동 활성화’ 2011년 겨울학기 프로그램, 미술관을 위한 쌈지길의 역할 설정’ ‘이직 끝까지 않는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문의 062-224-0907. /김미은기자 mekim@

## 미술관 소식·전시 정보를 한눈에

광주시립미술관 22번째 소식지 발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이 자신들이 기획한 전시회를 소개하고, 미술계 소식을 들려주는 ‘미술관 소식지(GMA NEWS)’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미술관 본관, 상록전시관, 어린이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정보와 미술관 문화센터 2011년 겨울학기 프로그램, 미술관 실무연구교육과정 운영, 창작스튜디오(양산동, 북경) 등이 담겼다.

또 최근 단행한 미술관 조직개편, 중의공원 내 도도개방 등 다양한 미



미술관 소식들을 게재했다.

소식지는 국립미술관 및 갤러리, 미술인 등에게 우편·발송되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청,

일선 구청, 문화기관, 광주지역 주요 호텔,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된다. 문의 062-613-715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